

6월 19일 목요일 / 수단

내전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전쟁 중인 두 세력은 예배 장소를 공격합니다. 교회, 기독교인 대피소, 성경학교가 모두 포격당하고 점령당해 군사 기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쟁 시작 후 150개 이상의 교회가 파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법 상태가 되면서 민병대 단체들도 점점 대담하게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단 기독교인들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주시고,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힘과 신성한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월 20일 금요일 / 수단

RSF 준군사조직은 민간인, 특히 기독교인 여성들을 성폭력과 강제 결혼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과 소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수단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6월 21일 토요일 / 라오스

라후(Lahu) 부족의 기독교 지도자 4명 라조르*, 카비아*, 제인*, 나차*가 2024년 10월 6일 라오스 북부의 한 가정교회에서 신자 19명과 함께 예배드리던 중 현지 당국에 체포되어 수감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이들의 신앙 활동을 제지하고 당국에 신고한 후 체포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4명의 지도자는 감옥에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어서 이들이 곧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지역 교회 지도자들과 파트너들이 지혜와 힘을 얻고 당국과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6월 22일 일요일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2022년 말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무려 1,620만 명의 기독교인이 공격과 치안 불안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실향민 수용소는 과밀하고 위생 상태가 열악하며 식량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 및 지방 당국이 실향민 수용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실향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6월 23일 월요일 / 미얀마

3월 28일 규모 7.7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진동이 계속되면서 균열이 생긴 집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후 일주일 동안 오픈도어 사역자들은 현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이재민 가족과 신자들에게 구호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지진 피해자들의 고통과 고충을 경청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진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의 삶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구호품이 차별 없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미얀마 곳곳에서 지

진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사람들, 교회, 단체와 국가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6월 24일 화요일 / 베트남

트린*의 남편 만*은 혁명이 집안 출신입니다. 베트남의 혁명가 가족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 당국은 가족의 기독교 신앙을 알게 되자 계속 하나님을 믿는다면 보조금을 잃을 것이고, 자녀들은 무상 학비를 받지 못할 것이며 일자리를 찾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남편 은 이 일로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24년 3월, 남편은 트린을 폭행하며 신앙을 포기하라고 했지만 신앙을 선택한 트린은 두 아이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임시 거처에 살고 있는 트린과 자녀들을 모든 상황 속에서 강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이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6월 25일 수요일 / 콜롬비아

‘초코’ 지역에서는 게릴라 무장 단체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무장단체는 교회를 감시하고 있는데 신자들은 이들에게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납치되거나 자신이나 가족이 강제 징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만 이 지역에서 46건의 박해 사건이 기록되었으며, 46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는 납치, 감시, 강제 이주, 정신적 피해, 재산 파괴, 종교 모임 제한 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해치려는 자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도록 기도합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고 믿음 안에서 전진하도록 기도합니다.

6월 26일 목요일 /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슬람에서 개종했다는 의심만으로도 체포되거나 집이 파괴당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피난처를 허락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배우자가 기독교인일 경우 이혼하거나 결혼을 무효화하라는 강한 압박이 가해집니다. 탈레반 정부는 자녀를 무슬림으로 양육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독교인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합니다.

6월 27일 금요일 / 몰디브

국가 지도자들은 몰디브가 100% 순수 수니파 이슬람 국가로 남아야 한다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성경이나 기타 기독교 관련 자료를 숨긴 채 생활합니다. 이러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투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리에 신앙 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외부의 압력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기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

기를 기도합니다.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월 28일 토요일 / 리비아

리비아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그리고 샤리아법을 법률의 제정에 있어 주요 출처로 선언합니다.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는 여전히 매우 적습니다. 이들이 주님 안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늘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위성 텔레비전의 기독교 프로그램 및 아랍어로 된 기독교 웹사이트의 출현으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기도합니다.

6월 29일 일요일 / 니제르

2023년 발생한 쿠데타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었으며,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알-순나’와 ‘자마아’가 기독교인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통제 지역에서는 교회 예배가 위험해졌으며, 공격과 납치 사건으로 기독교인들의 자유와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치적 혼란을 다스리시고 질서를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의 공격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월 30일 월요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오픈도어가 월드와치리스트 지역설명회를 7월에는 광주에서, 8월에는 부산에서 주최합니다. 박해받는 교회는 우리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 형제자매의 고통과 믿음을 한국 교회 성도들과 공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기도와 물질로 함께 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는 귀한 분들에게 대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기도월력의 기도제목들은 한국오픈도어 카카오톡채널에서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도월력은 홈페이지 요청하기에서 월간 『오픈도어』OpenDoors 신청 또는 한국오픈도어로 전화하시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등록번호-종량, 라00042 부록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2025년 06월
VOL.

278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 요 20:18 -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6월 1일 일요일 / 이란

신앙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 중인 랄레 사티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티는 교도소 마당에서 넘어져 왼손 손가락 두 개를 다쳤으며, 보안 당국이 병원 진료를 계속 방해하면서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랄레의 어머니가 의료 시설로 이송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으나 당국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전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녀가 감옥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월 2일 월요일 / 중앙아시아

6개월 전 예수님을 믿게 된 레나는 이를 알게 된 남편에게 구타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었고 다른 사람들과 몰래 만나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레나의 열다섯 딸 올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편은 딸의 죽음에 대해 레나를 비난하며 때리고 집에 가두었습니다. 레나와 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6월 3일 화요일 / 시리아

4월 6일, 성 조지 교회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단체가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교회 벽과 벤치에 휘발유를 붓고 창문을 통해 교회에 폭발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핀이 제대로 뽑히지 않아 폭발물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보안군의 도움을 받아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보안군은 이 사건의 책임자를 파악하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공격의 세부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이 밝혀지고 정당한 심판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시리아의 기독교 공동체가 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월 4일 수요일 / 이집트

외딴 마을을 찾아가 소녀를 지원하는 그룹이나 제자 양육 모임을 인도하는 젊은 여성 사역자들에게 어려움이 큼니다. 여행 중에 종종 무기로 무장한 괴롭힘을 일삼는 젊은 남성 무리에 의해 공격당하고 소지품을 강탈당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극단주의 무슬림의 언어적 괴롭힘과 위협적인 행동을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이 이러한 위험에 대해 알게 되면, 젊은 여성 사역자들에게 봉사를 그만두라고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봉사에 대한 소명과 안전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용기있는 여성 사역자들을 보호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동안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시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월 5일 목요일 / 중앙아시아

일단* 형제는 자신의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사적을 배포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KGB에 알렸습니다. 그를 찾아온 KGB 수사관들은 그를 KGB로 데려가 심문했습니다. 현지어로 된 성경 이미지를 한 형제에게 보낸 사실로 인해 형사 소송이 시작되어 법원으로부터 625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다시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받았습니다.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는 일단 형제와 가족이 믿음이 강해지고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6월 6일 금요일 / 필리핀

라모나(48세)의 성인 자녀들은 신앙을 이유로 남편에게 버림받고 라모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미망인인 라모나가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모나는 최근 오픈도어 제자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사역이 어느 곳이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신앙 때문에 신자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월 7일 토요일 / 베네수엘라

전직 청부살인업자였던 힐더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출소 후 그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도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힐더 목사를 통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6월 8일 일요일 / 콩고민주공화국

조나단은 가족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ADF에 의해 살해된 후 오이차 난민 캠프에서 동생 캄발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대부분은 집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동생은 가족이 ADF에 의해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캄발레와 같이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학교가 끝나면 조나단은 일 자리를 찾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을 기대하지만 생활은 너무 힘듭니다. 조나단과 동생의 육신적 필요가 채워지고 예수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소년들이 기쁨, 희망, 사랑, 성취감을 꿈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월 9일 월요일 / 스리랑카

70세의 자얀티는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세 명의 자녀가 있지만, 자녀들은 어머니의 신앙을 이유로 7년 넘게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살고 있는 작고 오래된 집은 한 쪽 벽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약 7년 전, 불교 사원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면서 이 분에게 기독교

교 신앙을 포기하고 불교도가 되면 집을 지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새 집이 필요했지만,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4월, 오픈도어 현장 사역자들이 집 수리를 도왔고 어르신은 주님께 감사를 돌렸습니다. 나이가 많고 혼자 살고 있는 이 분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계속 주님과 함께 하며 어머니를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월 10일 화요일 / 인도

2023년 5월 3일 마니푸르 주에서 발생했던 쿠키족 기독교인들과 힌두교 메이테이 부족 간의 폭력 사태로 수천 명의 난민과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마을과 집은 파괴되었으며 수백 개의 교회는 약탈당하고 불에 탔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그 곳은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평화와 화합은 아직도 먼 꿈입니다. 국가와 지역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평화를 회복하고 종교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모든 피해자들의 영적, 심리적, 육체적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고통과 분노, 증오로 인해 폭력과 마약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6월 11일 수요일 / 인도

마니푸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집을 떠나 캠프에서 생활하는 난민들을 위해 나라 안팎의 기부자들이 계속해서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마니푸르 주민들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종교 분쟁의 여파로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월 12일 목요일 / 북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북한 통치자 김정은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그에게 나타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수십만 명의 북한 내 지하교인을 포함하여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외침을 그가 듣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6월 13일 금요일 / 북한

오픈도어는 국경을 넘어 위험한 여정을 나선 북한 사람들을 위해 중국에서 은신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은신처를 운영하는 이들과 이 곳을 찾는 북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은신처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통해 주님께 이끌려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월 14일 토요일 / 모로코

모로코의 국가 공식 종교는 이슬람교이며, 인구의 99%가 무슬림입니다. 역사적으로 큰 공동체였던 유대교와 기독교는 20세기 중반부터 크게 줄

었습니다.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이 알려지면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보안 기관에게 치밀한 감시를 받으며, 대부분 친족과 사회에서 거부당합니다. 라일라는 남편에게 기독교 신앙을 들킨 후 이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대부분의 여성이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남성에게 의존해야 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시고 육신적, 영적, 정서적 필요들을 채우시도록 기도합니다.

6월 15일 일요일 /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1%에 불과합니다. 이 소수의 신자들이 그들이 사는 곳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지역의 소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분열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긴장으로 가득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기도합니다.

6월 16일 월요일 / 방글라데시

인구의 90%가 무슬림인 나라입니다. 이 곳에서 목사의 자녀인 모롬은 신앙 때문에 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친구들은 모롬을 ‘기독교인’이라 부르며 따돌리고 괴롭히며, 벽돌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모롬이 이슬람교로 돌아오면 같이 놀겠다고 말합니다. 교사들은 모롬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못 본 체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모롬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모롬이 등하고 할 때를 포함해서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6월 17일 화요일 / 필리핀

이슬람에서 개종한 9살 예산은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학교에서 심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마드라사(이슬람 학교)에서 코피아(무슬림 모자)를 쓰라고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사에게 벌을 받고 친구들에게 놀림당했습니다. 예산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박해를 잘 견디고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산의 용기 있는 믿음이 힘있는 간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6월 18일 수요일 / 브루나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온 40대 카일라는 예수님을 모르는 남편에게 구타당하고 언어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카일라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카일라는 믿음을 지키며, 비슷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여성들을 제자 삼고 있습니다. 카일라는 남편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녀의 삶이 결혼 생활에서 같은 일을 겪고 있는 다른 여성들에게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